

■ 괴운(槐雲) 칼럼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오늘은 며칠 전에 친구가 보내준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23가지에 대해 알아본다. 명심보감은 '바른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책으로, 고려 충렬왕 때 추적(秋適)이란 학자가 지었다. 기존의 여러 책에서 마음에 관련된 구절을 모아놓은 책이다. 특히 삼강오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의 질서와 도리를 밝히고, 열심히 면학하여 지식을 갖추어 올바른 인간상을 성취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태공이 말하였다. 남을 무시하지 마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남을 업신여겨 서는 안 되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2)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라. 참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약나무 밑에서는 깃장을 바로 잡지 말라. (3)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당한다.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부터 해야려 봐라. 남을 해치는 맘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니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뺏으면 먼저 자신의 입부터 더러워진다.

(4) 맹자가 말하였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려 하면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5)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6) 공자가 말하였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공자가 말했다.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적이다. (7) 누구나 배울 점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스로에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 (8)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말라.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9) 순자가 말하였다.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말라. 쓸데 없는 말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살피는 것은 하지 말라. (10) 한쪽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서로 헤어지게 된다. (11) 남을 욕하는 건 하늘에 짐 뱉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욕하거나 모든 체해야 한다. 모든 체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욕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다. 이는 마치 누워서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다.

(12) 노자가 말하였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남

이 알아서 안 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남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13) 말 한마디로 천 낭 빛을 같다.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천금을 가진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번의 행동을 잘못하면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독할 수 있다.

(14)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원수를 만들지 마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벼려두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15)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걱정이 많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걱정이 많다. (16)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웃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17) 뿐만 대로 기운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양성한 듯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별을 내린다. (18)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닥쳐오는 재앙은 요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을 놓치면 다시 구해도 구할 수 없다.

(19) 친구를 가려 사귀면 후회가 없다. 말을 적게 하고 친구를 가려 사귀면 후회가 없고, 근심과 모욕이 따르지 않는다. (20)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진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21) 자신을 낫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자신을 낫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22) 너그러운 사람에게 복이 온다. 모든 일에 관대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23) 지나친 생각은 정신 건강을 해친다. 지나친 생각은 한갓 정신을 상하게 할 뿐이요, 아무 분별없이 하는 막된 행동은 자신에게 도리어 화를 입힌다. 이상 23개 항은 명심보감에서 현대인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풀이한 내용이다.

명심보감의 명심(明心)은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이요, 보감(寶鑑)은 '보법이 될 만한 사물이나 글귀'이다. 명심보감은 처음에는 계선편·천명편 등 19편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에 효행·근학 등의 5편이 추가되었다. 핵심 내용은 주로 권선정악의 하들과 이치를 설명하고, 자기를 반성하여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계발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핵심 내용 23가지를 다시 익히해 보고 권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 노자가 말하였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남

퇴경당 권상로 대종사 사적비

퇴경당(退耕堂) 권상로(權相老, 33세, 복야공파, 1879~1965) 대종사 사적비(事蹟碑)이다. 이 사적비는 대종사가 입산수도했던 경상북도 문경의 김룡사(金龍寺)에 서 있다. 1894년 동학군에 가담했던 부친이 변고를 당하자 그 충격으로 3년상을 마친 1896년 입산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 1906년 동국대학교 전신인 명진학교를 나와 김룡사 주지를 거쳐 1953년 75세에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중앙불교연구원장과 불교조계종원로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선불교역사와 조선종교사, 한국사찰전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권행원 편집국장



사진 : 권기모 총무국장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이번에 참배할 유적지는 홍릉(洪陵)과 유릉(裕陵)입니다.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고, 유릉은 조선왕조 마지막 왕인 순종의 능입니다.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9월 8일, 일요일, 12시 (시간엄수)

♣ 집결장소 : 경춘선 금곡역 광장

♣ 유 적 지 : 홍·유릉 참배

◆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희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4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웅 대종회 부회장(좌윤공파 38세)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2) 복귀의 법칙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려면 일정한 탕감조건을 세워야 한다.

탕감조건

첫째로 믿음을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지도자)과 조건물을 찾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중심인물에게 무조건 순종 골복함으로써 실제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가 볼 때 대부분의 죄인들은 하나님에 세운 중심인물(지도자)에게 굽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의인과 성자들의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의인들의 고난이 제물적인 탕감조건이 되어서 그 터위에서 하나님은 사탄 편 세계의 인간들을 굽복시켜 왔던 것이다.

4) 조건적 섭리의 법칙

인간이 타락한 이후 복귀 섭리를 시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을 즉시에 인간을 복귀시킬 수 없으며 메시아를 강림시켜서 그를 통해서 인간을 복귀시킨다. 메시아의 재림까지는 6000년 걸렸다. 그런데 메시아가 실제로 강림하시기 전에, 즉 실제 섭리를 하기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징적 및 형상적인 섭리를 하신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는 메시아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강림과 관련된 상징적 형상적인 섭리의 예가 있다.

오늘날 공산당들은 수많은 종교인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수난을 조건 삼아서 드디어 기필코 공산세계를 굽복시키게 된다.

2) 분립의 법칙

타락한 아담은 두 주인을 대할 수 있는 비원리적 입장 이였기 때문에 분립시키는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물을 드리게 하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선편으로 분립되어 있던 아벨이 끝까지 선편을 대신했던 심정의 터전이 남아있음으로 이 터전을 조건 삼아서 하나님은 전 역사 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사탄 세계에서 선을 갈라 세우는 분립의 역사를 계속해 왔다.

먼저 개인을 분립하고 다음에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순으로 분립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악편은 공산주의 세계요 선편은 자유세계, 특히 기독교 국가군들이다. 이러한 분립의 목적은 선과 악을 싸우게 하여서 최후에 가서는 선편이 악편을 이김으로써 죄악의 역사를 종결짓기 위함이다. 고로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역사가 아니라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편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며 악편의 공산주의는 기필코 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3) 4수 복귀의 법칙

인간 타락으로 피조 세계의 4위 기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적 4위기대를 상실하였다. 사탄에게 뺏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 피조세계가 사탄주관 권내에 들어갔다. 고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중심목적은 이 뺏어버린 4위 기대를 복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하

나님은 심정적, 조건적인 섭리를 거친 후에 실체적인 섭리를 하심으로 4수 복귀도 먼저 조건적인 섭리로서 40, 400등 4수를 기간으로 찾아 세우는 섭리를 하여 왔다. 그리하여 역사는 수많은 4수를 나타난다.

가까운 예는 을사보호조약(1905년) 후 40년 만에 해방되었고 공산정권 수립 후 1919년 이후 40년(1960) 경부터 소련과 중국 간의 균열, 토인비도 역사에 400년 기간이 지나 나타나는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와 서구' A.J. 토인비 저, PP 155-156)

40, 400년의 기간은 훈란기 또는 사탄에게 내주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새로운 섭리를 하신다. 따라서 공산사회의 분열이 시작되어서 40년이 되는 2000년까지는 공산사회는 모두 붕괴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섭리가 시작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조건적 섭리의 법칙

인간이 타락한 이후 복귀 섭리를 시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을 즉시에 인간을 복귀시킬 수 없으며 메시아를 강림시켜서 그를 통해서 인간을 복귀시킨다. 메시아의 재림까지는 6000년 걸렸다. 그런데 메시아가 실제로 강림하시기 전에, 즉 실제 섭리를 하기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징적 및 형상적인 섭리를 하신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는 메시아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강림과 관련된 상징적 형상적인 섭리의 예가 있다.

어났고 끝날에 세계적인 재림주를 중심한 하늘편 통일세계가 출현하기 전에 세계적인 사탄편 재림주원인 스텔린을 중심한 사탄편 통일세계인 공산세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법칙에 따라서 이제 불운하여 하늘편 선민국기를 중심한 통일세계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산세계는 기필코 멸망될 것이다.

6) 종의 형적 전개의 법칙

역사상 여러 섭리적 사건들은 하나님 뜻 맞게 완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미완결이체 남겨 놓고는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끝나지 않는다 고로 역사상의 모든 섭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끝날에 재현시켜 놓고 재림주를 중심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도록 섭리를 시행한다. 이것이 종의 형적 전개의 법칙이다. 이것은 역사상의 여러 시점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던 섭리적 사건들을 끝날에 뜻맞게 해결함으로써 복귀섭리 전체를 일시에 탕감복귀하여 섭리역사를 완결짓기 위해서인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간의 싸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주변인 이방 국가 간의 싸움의 재현이요 한반도의 북반도 강점한 공산 세력은 고구려 이후 여려차례 침입하였던 북방세력(수, 당, 원, 명, 청등)의 재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끝날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속출된다. 따라서 이 같은 종의 형적 전개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건의 갈피를 잡기 힘들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산악회 제341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1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9월 15일 10시 (시간엄수)

♣ 집합장소 :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 산 행 지 : 도봉산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4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